

의회의 심의·의결 권한 준수 촉구

오임선 익산시의원, “시의회 승인받은 예산 당초 목적 외 변경 사용 최소화 하라”

익산시의회 오임선 의원(아양)은 13일 제267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익산시의 예산 변경 집행 실태를 비판하며, 의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예산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구성된 익산시 살림의 기본이며, 시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익산시가 승인된 예산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주요 사례로 2024년 초등학교 농구대회 예산이 계획에 없던 유도대회로 전환 사용한 건, 2023년 중앙체육공원 기능보강 예산이 예산 설명 때 언급되지 않은 배산체육공원 기능보강사업으로 변경 사용한 건, 2023



오임선 의원

년 주차장 조성을 위해 부지 매입한 후 주차장이 아닌 화단을 조성한 건을 예시했다.

오 의원은 “예산의 이용전용 외 예산변경이 집행부의 재량 사항이지만 근본적으로 성질이 다른 사업부기 변경은 추경을 통해 의회 심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당초 사업이 아닌 변경된 사업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의회 심의했다면 의회에서는 의결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의회 변경사용 내역을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며, “년경사용 사례가 분명히 발견되었음에도 해당 사용건 없음으로 제출된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경고했다.

오 의원은 “예산이 의결한 취지와 다른 사업으로 긴급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의회의결이 아니라도 최소한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절차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익산시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익산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를 대변한 것으로 평가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신혼부부·청년 주거비 지원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대출 시... 최대 3.0% 이자 지원

익산시가 올해도 전국 최대 규모의 '신혼부부·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이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신혼부부와 청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를 연중 모집하며,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보증금으로 나눠 진행된다.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디딤돌 대출과 보증자리 톤(Lam), 신생아 특례 대출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주택 담보 대출 상품을 대상으로 이자를 반기별로 현금 지원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24년 7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19~39세 익산 거주 청년은 대출 잔액 1억 원 한도에서 연 최대 300만원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24년 이후 혼인하거나 익산으로 전입한 신혼부부와 청년은 대출 잔액 2억 원 한도에서 연 최대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주택가액 6억원 이하이며, 이자 지원율은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지원기간은 기본 3년으로 자녀 수 증가에 따라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시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와

19~39세 이하 청년이다. 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익산시와 협약을 맺은 농협과 전북은행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으면 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를 최대 3%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보증금의 90% 이내로 신혼부부는 최대 2억원, 청년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 지원 금액은 연 최대 신혼부부는 600만원, 청년은 300만원으로 시가 은행으로 이자를 지급한다.

이자 지원을 받으려면 우선 협약 은행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익산시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은행 대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협약 대출 상품을 이용해야 지원이 가능하고, 비협약 전세자금 대출 등 다른 전세 대출 상품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원 기간은 2년마다 신청을 하면 6년까지 연장되고,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익산시청 콜센터(1577-0072), 주택과(063-859-5541, 5558)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인구 허리띠인 청년 세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주거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제설작업 참여한 공무원·시민들 노고에 감사”

강임준 군산시장, 신년맞이 간부 공무원들 새로운 변화·혁신 당부



강임준 군산시장이 지난 7~10일 내린 폭설 속에서 24시간 제설작업에 참여한 직원과 시민들의 노고에 감

사를 표했다. 강 시장은 13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3일 동안 20cm에 가까운 폭설이 내려

도로 통행 등의 불편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시청과 읍면동 전 직원이 제설작업에 전력투구해 적설 전 빠르게 제설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의 폭설 피해를 막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나서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 시장은 공직사회의 혁신과 시민 서비스 제공에 더욱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강 시장은 “우리가 1시간 노력하면, 시민들은 2시간 편할 수 있다. 특히 시민들이 시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 시 부서를 가리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게 중요하다.”라면서 “국과장들이 술선수범하고 새해에는 변화와 혁신을 이뤄가는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조남석 익산시의원, 용동면 화실리 일원 침수피해 방지 방안 제시

13일 제2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조남석 의원(합영, 황등, 함라, 옹골, 상당, 용안, 망성, 용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동면 고창마을의 상습침수지역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우리나라도 국지성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는 숫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익산시 또한 수 많은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용동면 고창마을은 이러한 국지성호



조남석 의원

우로 인한 피해를 매년 입고 있는 지역으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조 의원의 의견이다.

조 의원은 △ 침수정 및 펌프시설의 설치, △침수위험지구 지정을 통한 대대적인 우수관로 정비, △침수지역 인근 필지 매입

을 통한 저류시설 설치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정마철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정현을 시장에게 다시 한번 촉구했다.

조 의원은 “바이오폐수, 하수도, 도로관리과, 익산농어촌공사 등과 현장방문해 해결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어느 부서 한 곳에서만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에 화가 나지만 문제 해결이 우선이기에 하루속히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업체 모집

내달 10~14일 군산시청 방문 접수

군산시는 13일 '2025년 군산시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및 공급업체'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군산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업체로, 모집 분야는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식품 외 제조상품, 관광체험 및 유무형 서비스 분야이다.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군산시청 고향사랑기부금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답례품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청 누리집 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군산시 대표 답례품으로는 쌀, 보리, 농산물꾸러미, 박대, 꽃게장, 장아찌 등으로 19개 품목 28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군산시민의 매력 있는 답례품을 추가 발굴하여 기부자는 선택의 폭을 넓히고, 지역업체는 의미 있는 판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3년 차를 맞는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의 답례품을 더욱 다양화하여 소중한 기부금은 지역에 도움이 되고, 기부자는 특색있는 답례품 혜택을 누리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시 고향사랑기부금은 현 주소지가 군산이 아닌 개인이 군산 발전을 위해 기부하는 제도로, 올해부터는 연간 2000만 원 한도까지 가능하다.

10만 원까지는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1만원 초과분은 16.5%)와 기부액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겨울방학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발대식

익산시가 방학을 맞은 대학생의 사회경험 기회 확대와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익산시는 13일 겨울방학 대학생 행정연수 발대식을 개최하고 학생들의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시는 발대식에서 행정연수에 참여하는 대학생 144명을 대상으로 사업의 취지와 유의 사항 등을 전달하는 교육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이날부터 다음달 7일까지 4주간 다양한 행정업무를 체험하게 된다.

매년 대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올해도 150명 선발에 531명이 지원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아울러 매회 사업의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의 96% 이상이 만족하는 등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연수 사업을 통해 대학생들이 공공기관의 실무를 직접 경험하며 직무 역량을 키우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2025년 정기분 등록

면허세 7억 9000만원 부과

군산시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로 4만3,131건, 7억 8,9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인·허가, 등록 등의 각종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고려 1종에서 5종까지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만5,000원까지 종별로 차등 구분하여 과세될 예정이다.

납세자는 이번 등록면허세를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가 없어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가상계좌, ARS(142-211), 인터넷지로 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 전국 은행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 부과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063-454-2430)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